# ‘암살’ ‘남영동’ ‘1987’…대한민국 고문 잔혹사

**뉴스인사이드**

### 노덕술~이근안~박처원 실제 인물 모델 친일경찰 노덕술 사단 막내였던 박처원 박종철 사건은 물론 이근안 도피에 관여

영화 ‘1987’

2015년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 ‘암살’은 일제강점기 친일파 제거에 나선 독립투사들과 이들을 배신하고 일제 앞잡이가 된 친일 밀정에 관한 이야기다. 이정재가 연기한 영화 속 친일 밀정의 모델이 된 실제 인물은 친일경찰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노덕술이다.

2012년 영화 ‘남영동’은 1985년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치안본부 대공분실, 일명 ‘남영동’에서 청년운동가 김종태가 겪은 고통을 그렸다.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고문기술자’ 이두한(이경영)을 등장시켰다. 이두한의 캐릭터가 모티브 삼은 인물은 이근안 전 경감이다.

그리고 현재 상영 중인 ‘1987’.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이 ‘남영동’에서 경찰의 물고문 끝에 숨져간 순간에서 시작하는 영화는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을 이끄는 박 치안감(김윤석)을 주요 인물로 설정했다. 역사적 사실을 그려낸 영화 속 박 치안감은 박처원 당시 치안감을 모델 삼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어떻게 축소 조작됐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현실의 세 인물은 ‘암살’과 ‘남영동’ 그리고 ‘1987’을 한 줄기로 잇게 한다. 바로 고문을 통한 ‘좌경세력의 발본색원’이다.

노덕술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을 고문의 고통으로 떨게 한 일제 고등계 형사였다. 해방 이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단죄에서도 벗어나 다시 경찰이 되었다. 그리고 ‘빨갱이 색출’에 나서 가혹한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도 유사한 고문치사 은폐 조작에도 나섰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2001년 5월 ‘한겨레21’을 통해 “노덕술은 군으로 무대를 옮겨 헌병 중령으로 변신해 1사단 헌병대장을 지냈다. 그러나 그가 창설한 이른바 노덕술 사단은 한국 대공경찰의 모태가 되었고, 그 사단의 막내가 바로 뒷날 자기 사단을 만들며 대공경찰의 대부가 된 박처원이었다”고 썼다.

박처원 전 치안감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조작한 혐의로 1996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999년 11월16일자 동아일보는 “85년 민청학련 의장이었던 김근태 씨에 대한 고문을 당시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박씨가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이근안 씨에게 수사팀에 합류토록 직접 지시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김근태 전 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고소당한 이근안 전 경감이 무려 10여년의 도피 끝에 자수해 검찰 조사를 받던 때였다. 당시 동아일보는 “경찰 대공분야 최고책임자였던 박 전 치안감의 지시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으며 동료 경찰관들의 조직적인 비호를 받아왔다”면서 “박처원 사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치안감은 이와 관련해 2000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근안 역시 1999년 11월 불법감금 및 독직가혹행위죄로 구속 기소돼 2000년 9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형을 선고받았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 숫자뉴스

**3135일**

개그우먼 홍윤화(30), 개그맨 김민기(35) 커플이 연인이 되어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날들이다. 2010년 4월19일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3135일 만인 2018년 11월17일 오후 6시 서울 논현동 뉴힐탑 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울린다.

## #해시태그 컷

### 화기애애 ‘나 혼자 산다’ 신년회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출연진이 신년회를 즐겼다. 성훈 박나래 한혜진 이시언 윤현민 전현무(왼쪽부터 시계방향)의 표정이 하나같이 해맑다.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운 각종 안주와 술병이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했는지 알려준다. 하지만 팬들은 기안84가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표한다.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이 기안84일까.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스포츠동아 #나혼자산다 #무지개회원 #신년회 #기안84는 어디에

## 연예현장.jpg

### 돌아온 오마이걸 ‘요정들의 포즈’

걸그룹 오마이걸이 9일 다섯 번째 미니앨범 ‘비밀정원’을 발표하고 9개월 만에 돌아왔다. 동명 타이틀곡은 자신의 꿈을 담은 비밀정원을 꿋꿋이 키워나가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곡으로 멤버들은 무대에서 ‘동화 속 요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마이걸은 이날 앨범 발표를 앞두고 서울 명동 신세계 메사홀에서 쇼케이스를 열고 ‘비밀정원’ 첫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은 “오마이걸이 품고 있는 음악적 메시지와 에너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으면 한다. 힘든 시기에 오마이걸의 음악이 힐링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 영화

21 파고

영화 ‘파고’

### 만삭의 시골 수사관 살인범 쫓는 엄마로

아직 국내 개봉하지 않은 영화와 그 여주인공이 화제다. 8일 열린 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4관왕을 차지한 영화 ‘쓰리 빌보드’, 그 중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프란시스 맥도맨드를 향한 관심이다.

국내서 유명세가 대단한 할리우드 스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낮지만, 60세의 이 배우는 출연하는 영화마다 관객에 쉽게 잊히지 않는 연기를 보여준 인물이다. 대표작도 여러 편. 특히 1997년 국내 개봉한 영화 ‘파고’는 빼놓기 어렵다.

범죄스릴러의 명작으로 꼽히는 ‘파고’는 조엘 코엔, 에단 코엔 형제 감독의 실력을 세계 영화계에 알린 작품이다. 섣부른 거짓말이 만든, 불완전한 인간들의 파국을 팽팽한 긴장감으로 완성했다.

극의 무대는 1987년 파고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 빚에 시달리던 자동차 세일즈맨 제리는 자신의 아내를 납치해 돈 많은 장인에게 몸값을 받아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양아치나 다름없는 칼과 게어를 고용한다. 제리의 아내를 납치한 두 사람은 엉뚱한 상황에 뒤엉키면서 연이어 살인을 저지른다. 프란시스 맥도맨드는 이들을 쫓아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시골 경찰서장 역할. 혼자 자동차 시동을 켜는 것도 어려운 만삭의 몸이지만 범죄수사에는 타고난 직감을 가진 인물이다. 집요하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한 그는 결국 전말을 밝혀낸다.

얼핏 ‘파고’와 ‘쓰리 빌보드’에서의 프란시스 맥도맨드는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 ‘파고’에선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만삭의 수사관이었다면, ‘쓰리 빌보드’에선 무능한 경찰 대신 딸을 죽인 살인범을 응징하는 엄마다. 21년의 시차를 두고 나온 두 영화에서 그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다.

‘파고’는 제49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비롯해 원 없이 상복을 누렸다. 프란시스 맥도맨드 역시 제69회 미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이해리 기자

# 에이핑크 주말 콘서트…폭발물 위협 골머리

### 만일의 사태 대비 경찰과 안전점검 강화

수개월째 ‘폭발물 설치’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걸그룹 에이핑크가 주말에 열리는 콘서트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에이핑크는 12~13일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단독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음악방송, 사인회, 제작발표회 등 에이핑크 멤버들이 참석하기로 한 행사장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을 받아온 터라 4000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연장에도 혹시나 모를 불상사가 생길 것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잇따른 협박에도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행사 지연 등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던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에이핑크 소속사 플랜에이 측은 9일 “사전에 관할 경찰서와 내부수색 등 안전점검을 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의 절차에 따라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내야하고 내부를 수색 점검해야한다”며 “지속된 협박으로 여러모로 손해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연장 내부로 들어가는 관객들에 대한 고민도 크다. 일일이 관객들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는 만큼 경찰과 경호팀, 팬마케팅 직원들이 의논해 관객들이 최대한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폭발물 위협’과 관련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에이핑크는 앞서 6일 경기도 구리의 한 전자제품 마트에서도 팬 사인회를 열 계획이었다가 ‘폭발물 설치’ 협박으로 취소했다. 에이핑크는 8개월간 50차례가 넘는 협박을 받아왔다. 이쯤 되자 협박범을 못 잡는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협박범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국적의 한국인이다. 나이는 32세. 소속사 측은 에이핑크에 대한 과도하고 삐뚤어진 팬심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소속사 관계자는 “경찰청이 캐나다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놓은 사실을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확인했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캐나다 정부의 법에 따라 송환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영수증’ 봤지? 판 벌리는 송은이

### 웹예능 ‘판벌려’ 공개…콘텐츠 제작 확대

송은이

송은이에게 개그우먼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부족하다. 방송 콘텐츠를 움직이는 크리에이터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방송가 히트작 ‘김생민의 영수증’을 기획해 성공으로 이끌면서 인정받은 실력을 올해는 한층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한다.

송은이가 얼마 전 세운 기획회사 (주)컨텐츠랩 비보를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장 9일 웹예능 ‘판벌려-이번 판은 춤판’을 공개했다. 동료 개그우먼 김신영, 김영희, 신봉선, 안영미와 팀을 이뤘다. ‘판벌려’는 이들 5인이 국내서도 유명한 일본 오사카 토미오카 고교 댄스부의 ‘칼군무’를 재현하는 콘셉트이며, 총 5회 분량이다.

송은이가 콘텐츠 기획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때는 2015년. 절친한 후배 김숙과 팟캐스트 방송 ‘비밀보장’을 시작하면서다. “방송사 개편마다 프로그램 존폐와 출연자 교체를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방향에서 마음껏 해보자”는 마음에서 출발한 방송이다. 이후 송은이는 ‘비밀보장’에서 이름을 따와 콘텐츠 기획사를 차렸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9일 “송은이는 컨텐츠랩 비보의 대표”라며 “여러 명의 작가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사가 결정권을 가진 ‘프로그램 편성’에 의존하지 않고 유연성 강한 팟캐스트 등 온라인 방송이나 웹예능을 활용하는 사실도 송은이의 다양한 도전을 가능케 한다. ‘비밀보장’의 한 코너로 시작해 인기를 얻어 KBS 2TV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된 ‘김생민의 영수증’도 그런 과정에서 탄생한 히트작이다.

이미 ‘판벌려’를 향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9일 본편이 공개되기 전부터 예고편이나 출연진의 사진만으로 SNS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 장덕철·문문의 ‘파란’

### 3인조 보컬그룹 장덕철 ‘그날처럼’ 히트 인디가수 문문도 ‘비행운’ 역주행 신화

장덕철·문문을 아시나요?

이름도 얼굴도 생소한 이들이 연이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장덕철, 문문이 각종 음원차트를 점령하며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이들은 9일 현재 주요 음원차트에서 ‘그날처럼’과 ‘비행운’이라는 곡으로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음원 강자’ 박효신을 비롯해 엑소, 인피니트, 블락비 등 막강 팬덤의 아이돌까지 가볍게 누르고 선두권을 차지하자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그날처럼’으로 차트 ‘올킬’을 한 장덕철은 솔로 가수의 이름이 아니라 장중혁, 덕인, 임철 등 멤버들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든 3인조 보컬그룹이다. 2015년 데뷔한 이들은 서울 홍대 주변의 클럽가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음반도 지금까지 디지털음원으로만 총 5곡을 발표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그럼에도 겨울 감성에 잘 어울리는 멜로디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사로 팬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남성 솔로가수 문문(30)은 지난해 말 ‘혜성같이’ 등장한 신예다. 여주대 실용음악과를 중퇴하고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해온 문문은 2016년 11월 발표한 ‘비행운’으로 1년 만에 음원차트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장덕철과 문문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건 SNS의 힘이 주효했다. 신인이고 언더그라운드가수라는 점에서 방송 출연의 기회가 전혀 없었지만 SNS에서 이들의 노래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주목받으면서 입소문을 탔다. “신선하다” “노래 좀 한다”는 반응과 함께 동영상 공유하기 등으로 점차 소문이 더해져 음원차트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정연 기자